



웰빙시대 공공의 적; 입냄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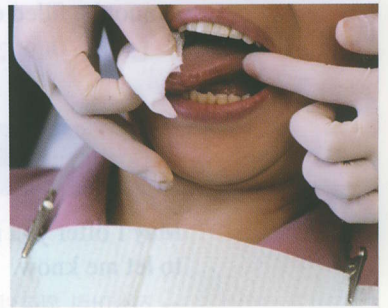
마야흐로 웰빙시대이다. 현대인은 육체적·정신적 건강의 조화를 통해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추구한다. 몸에 좋은 음식을 가려 먹고, 마음의 여유를 찾기 위하여 여가활동을 즐기며, 산뜻하고 청결한 생활을 원하고 있다. 냄새와 관련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 향수를 사용하여 자신만의 분위기를 만들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염두에 두어 방향제를 이용하기도 하며, 몸과 입안의 불쾌한 냄새를 없애주는 탈취제나 가글제도 빈번히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트렌드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예가 있다. 1980년대 초 모 제약회사에서 입안을 상쾌하게 하고 입냄새를 없애주는 가글제를 처음으로 출시하였다. 하지만 그 당시 사회적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아 참담한 실패를 맛보았다고 한다. 먹고사는 것이 중요한 시대에 입안을 청결히 하라는 제품의 호소가 먹혀들지 않은 것이다. 그 후 경제성장을 통하여 삶이 풍요로워진 90년대 후반에 재출시하였고, 요즘은 유사한 다른 제품을 선도하는 대표상품으로 연간 수백억 원의 판매고를 올리고 있다고 한다.

최근 직장인을 대상으로 입냄새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 직장인의 90% 이상이 입냄새가 신경 쓰인다고 응답하였다. 이것은 입냄새는 곧 불쾌감을 상징하며, 우리 일상생활에서 냄새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큼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사실 누구나 입에서 냄새가 난다고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다. 유난히 냄새를 유발하는 음식을 먹거나 입안이 청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아침에 잠에서 깨어난 직후나 배고픈 상태가 지속된 경우에서는 생리적인 이유로 입에서 냄새가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그 정도가 심한 상태나 지속적으로 냄새를 의식하게 될 때는 말 못할 고민거리가 되기도 한다.

입안에서 생성된 냄새

입냄새를 유발하는 원인은 다양하다. 그 중 직접 입안에서 발생한 경우가 전체의 90% 내외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가운데서도 설태는 입냄새의 주요 원인이 된다. 사실 설태는 섭취한 음식물의 찌꺼기, 입안에서 떨어져 나온 세포, 잇몸에 염증이 있을 경우에 생기는 백혈구, 침 가운데 끈적거리는 성분이나 입안의 세균덩어리 등이 혀 위의 울퉁불퉁한 구조물에 쌓여서 생성되는 것으로 누구에게나 생긴다. 하지만 설태가 비정상적으로 많이 쌓이게 되면 이로 인하여 특유의 입냄새가 유발되기에 문제가 된다. 설태가 많이 쌓이는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구강 위생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는 당연하다. 또한 침의 분비량이 줄어든 경우에도 입냄새가 심해질 수 있다. 입안에 쌓인 냄새물질을 잘 씻어내지 못하고, 침 중에 포함된 면역물질이 줄어들어 냄새를 만드는 세균이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그 밖에 혀 위의 실유두가 길어져서 냄새관련 물질이 잘 쌓이는 조건을 갖고 있는 경우에도 문제가 된다.



편도선과 후비루

입과 인접한 부위에 위치한 코와 편도선 부위에서 냄새가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편도는 때론 입냄새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전형적으로 편도에 염증이 있거나 편도결석이라는 냄새물질이 편도에 쌓여 있는 경우에 입냄새를 유발하게 된다. 또한 임상적으로 편도가 커져있는 경우라든가, 편도의 형태가 불규칙한 경우에는 섭취한 음식물, 끈적끈적한 침, 코에서 넘어오는